

“‘깨달음’을 인류 보편적 사상으로”



◀북한만수대학장자가사수한성철스님의 진영.

올해는 성철 스님이 열반한지 10년 되는 해다. 백련 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열반 10주기를 추모하는 국제학술회의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를 10월 16~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목정배(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

16~17일 성철스님 열반 10주기 학술회의
8개국서 불교·인지과학전문가 등 참가

장, 찰스 윌러(일본 동양학원대) 교수, 전현(전 뉴욕주립대) 교수, 켈 투 나구엔(조지 메이슨대) 교수 등 8개국 13명의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인지과학, 철학, 종교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깨달음’이란 동일한 주제를 각자의 전공학문과 접목해, 깨달음의 의미를 타종교와 비교하고 문화 일반에서 재조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택 스님은 9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돈오(頓悟)’라는 깨달음의 의미를 불교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 사상과 인생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국제학술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윌러 교수는 ‘집착 없음을 지향하는 경전읽기와 깨달음(Enlightenment in Reading Scriptures that Tend Toward Non-appropriation)’을 발표한다. 윌러 교수는 논문에서 “머물 없음이라는 개념은 불교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도가철학과 <금강경>, <관각경>이 ‘머물 없음’을 통한 깨달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윌러 교수에 따르면 도가사상은 ‘성인은 그것에 머물지 않기에 그것은 성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구

조적인 전환을 통해 잃는 이의 마음에 싹트는 머무름에 대한 습기(習氣)를 깬다. 그러나 “도가사상과 비교할 때 <금강경>은 ‘X는 X가 아니다. 그러기에 X라고 불린다’는 반복적 부정과 재긍정을 통해 의식적 습기를 깬 머물 없음을 수행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경전이다”라고 평했다.

‘깨달음’이라는 개념은 변화할 수 있는가?(Can the Concept of Enlightenment Evolve?)를 발표하는 철학자 마이클 레빈(서부 호주대) 교수는 “깨달음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시간의 경과로 바뀌게 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깨달음의 개념들이 예전에는 제대로 의미했었을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의미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 “불교의 중심개념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실제적 조건들에 반응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경전의 종교적·실질적 중요성으로까지 해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마이클 데이비드 쿠라(캐나다 뉴브런스윅대) 교수는 ‘깨달음과 과학문화(Enlightenment and the Culture of Science)’에서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불교의 연기론은 최근 신경과학의 성과들을 미리 예상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인지과학적 입장에서 깨달음에 대해 논의한다. 인지과학과 관련된 학술회의 준비위원장 조성택(고려대) 교수는 “인지과학은 깨달음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현대적 학문”이라며 “정신세계를 두뇌 연구에만 한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불교와의 상호연구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지과학과 불교학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불상(10)

불상에 나타난 권위의 의미



◀군위삼존불은 통일신라의 자신감과 권위적인 이미지가 처음 나타난 불상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역사 속의 기적이다.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국력이 열세이고, 지역도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강대국이었고, 백제는 불교를 일본에 전파할 만큼 국제적 역량을 갖춘 나라였다. 그러나 정작 삼국을 통일한

지 않는 무뚝뚝한 얼굴이다.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친근함보다는 종교적인 권위가 강조된 것이다. 중국 수나라 불상의 위엄 있는 양식이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한 몫을 거들었다. 다만 양쪽의 보살들에는 부드러운 인상인데, 이는 삼국시대 신라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권위와 종전의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한 모습이 신라가 통일되면서 불상에 나타난 특징이다.

신라가 통일한 뒤 주려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고구려와 백제를 어떻게 신라와 화합하

느냐에 있다. 이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이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그의 말아들인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취임한 첫해에 김춘추를 비롯한 진골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하였다. 문무왕 때부터 진골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신문왕

삼국통일 성취한 신라인의 자신감 투영 묵직한 체구·무뚝뚝 ‘군위삼존불’ 대표적

나라는 외형상 가장 허약한 신라였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의외의 결과에 의문을 갖고 저마다 그 이유를 찾고 있다. 김춘추의 뛰어난 외교가 상징하듯이 국제정세를 읽고 이에 대처하는 신라인들의 능력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신라의 통치조각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결실한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또한 신라의 통치세력이 백성들과 밀착되어 있는 점이 삼국통일의 원동력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통일을 성취한 자신감은 불상에서 권위적인 그 무엇으로 나타났다. 삼국시대 불상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이미지에서 위엄과 권위로 지배하는 이미지로 옮겨가고 있다. 군위삼존불이 바로 통일 직후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 예이다. 본존불은 묵직한 체구에 표정이 전혀 나타나

때 같음이 불거진 것이다. 이러한 왕권강화 정책 속에서 신문왕이 탈출구로 삼은 것이 답구로, 즉 대구로의 천도이다. 7백여 년을 수도로 지켜왔던 경주를 떠나 대구로 옮기려 했으니, 그 정치적 상황이 예상치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8 신문왕 때의 기사가 “689년 왕이 답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가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실증하듯이, 천도를 하지 못한 것이다.

통일신라 불상의 새로운 특징인 권위적인 이미지가 경주가 아닌 대구 팔공산 자락의 군위삼존불에 처음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근엄한 형상 속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통하여 백성들을 교화하려는 종교적인 목적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18일 ‘괘불’ 주제 첫 학술세미나

불화특별강연... 불교미술사학회 창립

통도사 개산 1358돌 기념



◀국보 제302호 청곡사 괘불탱.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스님)이 통도사(주지 현문스님) 개산 1358주년과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괘불전에 전시되는 국보 제 302호 청곡사괘불탱 특별전을 기념해 괘불을 테마로 한 세미나를 연다.

조선시대 괘불탱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괘불을 테마로 한 첫 학술행사로 불화전문 박물관인 통도사성보박물관의 특성을 잘 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정명회씨의 ‘의식집과 괘불의 도상적 변용’ 통도사박물관 김미경 학예원의 ‘삼세불괘불탱에 대한 소고’ 등 네가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17일에는 불화 특별강연 및 불교미술사학회 창립총회가 열린다. 젊은 소장학자 40~50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는 불교미술사학회는 젊은 학자들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1회 불화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055)382-1001 천미희 기자

‘빛나는 옛 책들’ 특별전

국보 ‘대보적경’ 등 101점

기증한 46건 101점의 옛 책이 ‘빛나는 옛 책들’이란 특별전으로 빛을 보게 됐다. 10월 7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2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246호 <초조본 대보적경(初雕本 大寶積經)> 등 국보 4건 4점과 보물 제1081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등 보물 22건 31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26건 35점에 달한다.

지난 6월 송성문 씨는 문화재 기증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바 있다. 송 씨가 기증한 문화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61건·보물85건)의 1/5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성문종합영어>의 저자로 잘 알려진 송성문(72) 씨가 지난 3월 국립중앙박물관에

내년 세계여성불자대회 각 분과별 논문초록 모집

세계여성불자대회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8th Sakya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의 각 분과별 논문초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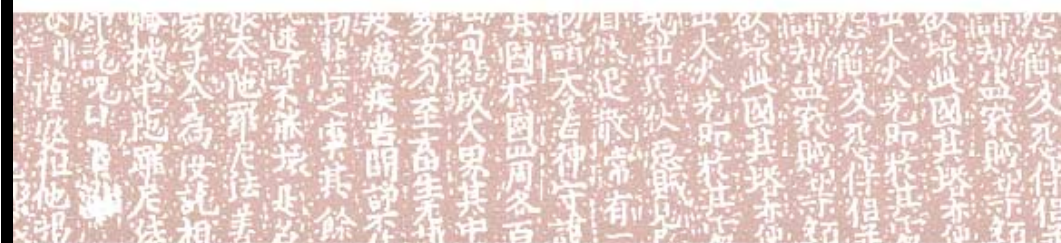
논문은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명상수행 △참여불교 속의 수행 등 6개 분과에서 모집하며 2004년 1월 15일까지 논문초록을 제출하면 된다. (02)766-9580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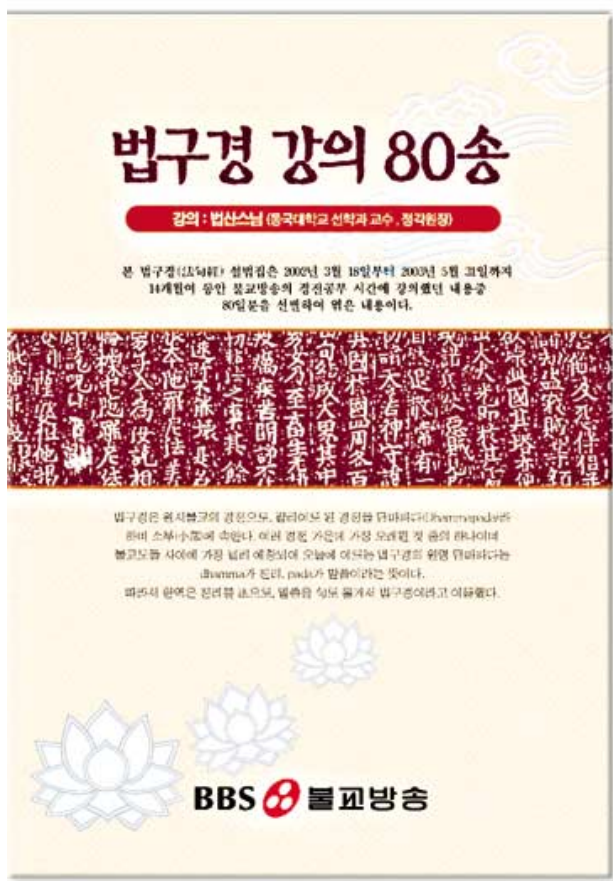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